

암 예방과 조기검진

Cancer Prevention and Screening

장성훈¹⁾, 유근영²⁾

1)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한국인의 총 사망률은 1992년 10만명당 555.6명에서 2002년 512.2명으로 지난 10년간 7.8% 감소하였으나 암 사망률은 10만명당 110.7명에서 130.7명으로 18.1% 증가하였다.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2002년 62,887명이 암으로 사망하여 전체 사망자의 25.6%를 차지함으로써 4명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암 발생과 암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암 예방과 조기검진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보건문제이다.

방법: 문헌조사에 의해 자료를 정리하였다.

결과: 암 예방은 질병관리의 궁극적인 방안인 1차 예방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2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예방을 위해 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 B형 및 C형 간염,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 인간유두종바이러스와 같은 만성감염, 고지방식, 저섬유소와 같은 식이 영양,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유전적 요인, 생식적 요인, 음주, 환경오염, 자외선, 전리방사선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암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항산화 미세영양소와 채소 과일 섭취, 호르몬 투여와 같은 개인의 저항능력을 증가시키는 화학적 예방(chemoprevention), 그리고 보건교육 등이 필요하다. 2차 예방은 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하는 것으로서 조기검진 또는 선별검진을 통하여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위험인자 또는 암을 찾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조기검진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국가 보건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임상전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며, 민감도, 특이도가 우수한 선별검사와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 받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대상자들이 쉽게 검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2002년도 암등록자료에서 암 발생이 많은 장기는 위(20.2%), 폐(11.9%), 간(11.3%), 대장(11.2%), 유방(7.4%), 갑상선(4.9%), 자궁경부암(4.0%)의 순서였다. 남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의 순으로 이들 4대 암이 남자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며, 여자의 경우는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순으로 이들 6대 암이 여자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암중에서 5대 호발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지침(검진 시작연령, 검진 간격, 검사방법)을 2002년에 국립암센터와 해당 학회에서 개발하여 2차 예방에 활용중이다.

향후 암 조기검진의 전망은 밝다. 면역화학검사 및 분자생물학 검사에서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은 새로운 암표지자들과, 호르몬 수용체나 암억제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암관련 유전자 검사 등이 개발중에 있다.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폐암세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검출하는 방법이 연구 중이다. 단층촬영을 이용한 가상대장 내시경은 내시경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캡슐내시경으로 소장 진단에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초음파검사, 컴퓨터단층촬영, 자기영상공명, 양전자단층촬영 등도 더욱 발전하여 적극 이용될 것이 전망된다.

결론: 적극적인 1차 및 2차 예방으로 암 예방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